

로맨티스트 환경인

차철환(車喆煥) 박사(1)

글/사진 : 박 창 근
<본회 고문 / 한국환경보호협회의 위원장>

차 철환 박사님을 Romantist 환경인이라고 지칭하는 데는 100가지도 넘는 이유가 있지만, 지면(誌面) 관계로 순서 없이 10가지로 압축하면,
첫째, 박사님이 살아오신 그동안의 생활이 쫓기거나, 번거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상 마음과 정신적인 면에서 여유롭게 사셨는데 Romantist의 생활 철칙이다.

둘째, 그래서 박사님을 만나고 가깝게 지내온 오늘날까지의 40년 동안 한 번도 화내시는 모습은커녕, 어떤 일에도 싫어하시는 모습을 뵈는 적이 없다. 항상 허허롭게 웃으시는 모습인데, Romantist의 기본 조건이다.

셋째, 얼굴은 물론, 풍기는 외모가 자타가 공인하는 Romantist이다.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넷째, 최근, 사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셨지만, 평소 이름난 애처가(愛妻家)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애처가 내지 공처가(恐妻家)가 이 Romantist의 조건이다.

다섯째, 직업이 의사이신데도 전혀 의사 분위기가 안 나신다. 자기 본업과 전혀 다르게 보여야 하는 것이 Romantist의 조건이다.

여섯째, 벌써 일흔이 넘으셨는데(옛날로 치면, 자유로운 바깥출입은커녕, 집안에서 손자들과 지내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보통인데...) 지금도 운전을 하신다. 그것도 최근에 따님이 사준 큰 차로 밤 골목을 누비는 것을 보면, 필자도 운전을 하지만 감탄하게 된다.

여기서 잠시, '큰 차로 밤 골목을 누빈다.'고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연인 즉, 우리 'Global 500



***사진설명:**

본 월간지 1986년 12월소식 표지에 모셨던, 당시 한국대기보전학회장으로 계시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계셨던 차철환 박사님!



인' 모임이 주로 저녁 6시부터 시작해 8, 9시에 끝나는데, 그때면 캄캄한 밤중이고, 모임의 장소가 광화문 좁은 골목 안 식당이라, 차를 꺾어 들어가고 나오는 데 상당한 운전 솜씨를 요하는데, 거침이 없으시다는 이야기다.

일곱째, 아직도 머리술이 멀쩡하시다. 머리가 벗겨진 Romantist는 실질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지만, 머리술이 많은 Romantist는 Platonic love를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댈 수 없는 학설이 있다.

여덟째, 옷을 멋있게 입으신다. 전에는 사모님의 코디로 알았는데, 혼자 계시면서도 변함 없는 것을 보니, 본인의 연출인데, Romantist의 기본 조건이다.

아홉째, Classic 음악을 즐겨 들으신다. 라디오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갖춘 Audio component로 들으시는데, 맥에서 갔을 때, 방금 들으셨는지 눈에 뜨이는 곳에 있던 LD 판이 Verdi의 La Traviata인 것으로 기억난다. Romantist는 처절한 슬픔을 사랑하고, Violetta와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좋아한다.

열째, 대학에서 알려진 Violinist라는 점이 Romantist의 이상적인 조건으로 꼽고 싶다. 직접 박사님의 연주는 들은 적이 없지만, Romantist라는 측면에서 추측하건데, 소리도 아름답고, 특히 기교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박사님의 직업과 성격으로 보아, 지적(知的)인 연주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든다. 즉, 박사님의 Violin 연주는 같은 곡을 여러 사람이 연주해도 소리가 모두 틀리듯이 뭔가 다른 소리... 기교만이 아니고, 아름다움만이 아니고, 심오함만이 아닌... 어딘가 듣고 있으면, 고상함이 느껴지고, 엄숙함이 느껴지고, 완벽함이 느껴지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그런 지적인 소리일 것 같다. 말하자면, 많은 세계적인 violinist 중에서 Henryk Szeryng나 Alfredo Campoli의 연주 소리라고 할까? 그러나 두 사람 중에서 Szeryng 이 한때 '루빈스타인' 이 이끄는 '푸르니에의 실내악' 황금 콤비로 활동했던 것 같이 차철환 박사님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유명한 Trio 멤버였음을 상기하면 Campoli 보다는 Szeryng에 더 가깝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차철환 박사님의 Violin 연주를 들어보지 못해 외형적 조건으로만 추측한 것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

하야간 Szeryng의 연주 양식은 엄격한 조형미와 단정한 프레이징 속에 파스한 인간미와 우아한 감각을 잃지 않고, 자유로운 강약의 대비법으로 지성과 감성의 밸런스를 글곡 있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지식이 높은 Violinist만이 구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차철환 박사님이 그 어려운 의학박사라는 점에서 대비한 것이다.

아무쪼록 계속 건강하셔서 좋은 글로 이 나라의 환경보호에 기여하실 것을 후배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계속>